

국민 54% “자식 세대 계층 상승 어렵다”

노인 10명 중 7명 ‘자녀와 따로 거주’...가장 큰 이유는 ‘편해서’ 60세 이상 76% ‘직접 생활비 마련’...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

OECD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10명 가운데 7-8명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76.0%가 본인·배우자가 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2년 전보다 3.5%포인트, 10년 전보다는 12.4%포인트 각각 늘었다. 자녀·친척 지원(12.0%), 정부·사회단체 지원(11.9%)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마련 방법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7.8%로 가장 많았다. 연금·퇴직급여(29.0%), 재산소득(8.1%) 등이 그다음이었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69.7%였으며, 이들 중 59.1%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셈이다.

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54.0%로 2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식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높다’고 생각한 사람은 29.1%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모르겠다’는 17.0%였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 일수록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도 낮게 봤다.

본인의 지위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45.9%는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낮게 봤다. 높게 본 사람은 46.8%로 더 많았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은 68.4%였다. 따로 사는 주된 이유로는 ‘편해서’(37.1%)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독립생활이 가능’(29.6%),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19.6%)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78.8%에 달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자들은 그 주된 이유로 ‘같이 살고 싶어서’(3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32.0%),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독립생활이 불가능’(21.3%)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겨울폭설 미리 대비하세요
임동인 8일 광주 북구 문흥동 제설자재보관소에서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직원들이 동절기 도로 결빙 시 사용할 모래주머니를 제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도권 뒤덮은 메가시티 광풍...광주·전남도 뒤덮나

광주시, 광역경제·생활권 통합 모색 등 정책 검토 착수 군공항 관련 합평 편입 재조명...전남도와 갈등 우려도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광풍이 광주·전남에도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메가시티’ 정책검토에 나서면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합평 광주 편입론 등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광주시의 ‘메가시티’ 검토로 민선 8기 들어 군·민간공항 이전,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등 ‘상생사업’마다 갈등을 빚어온 전남도와의 관계만 더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등도 나온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부적으로 지방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성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

시는 민선 7기 등에서 논의됐던 광주·전남 행정 통합안은 물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한 광주와 나주를 묶는 안과 함께 남양·장성 편입안, 합평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 지역 통합 논의가 본격 거론된 것은 민선 7기 때인 2020년부터다.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 등 타 지역 움직임에 대응해 광주·전남 대통합을 주장했지만, 전남도와의 입장에 이어 이 시장의 재선 실패 등이 겹치면서 유아무야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와 나주·장성·담양·화순·합평을 생활권으로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와 전남 여수·순천·광양과 접경지인 경남 남해·사천·진주 등을 하나의 묶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광주시 대변인은 “현재 광주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의 축으로서 종합적이고 다양한 전략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희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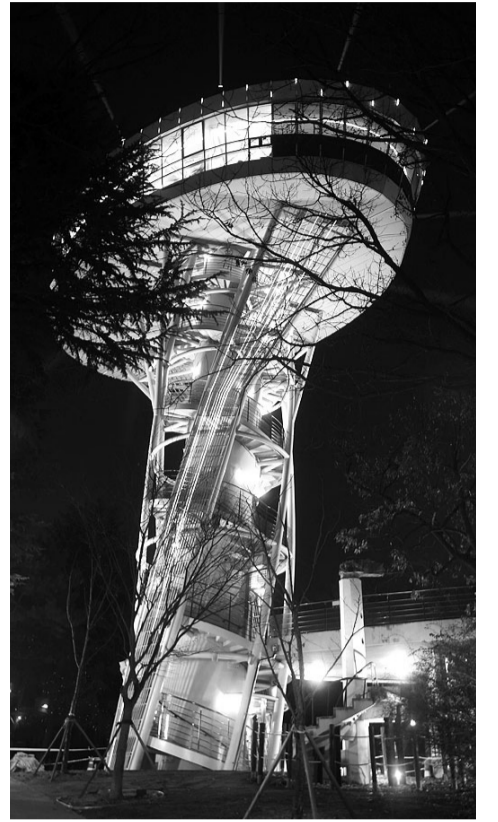
눈부신 ‘양림동 밤의 미술관’·‘사직공원 G타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광주·전남 명소 10곳 선정

빼어난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양림동 밤의 미술관’과 야간 도슨트 투어, ‘사직공원 G타워’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광주·전남 야간경관 등 지역명소 10개가 선정됐다. 이번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은 야간경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밤에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에서는 연중 투어프로그램 ‘양림동 밤의 미술관’과 야간 도슨트 투어와 ‘사직공원 G타워’ 등 2개가 뽑혔다. 특히 양림동 도슨트 투어는 어린이 내린 골목길을 따라 야간 미술관을 만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다.



불을 밝히고 있는 사직공원 G타워(사직공원 전망타워)의 모습. <광주일보 DB>

야경 명소로 떠오른 사직공원 G타워(사직공원 전망타워)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3권역에 속하는 도심형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사직공원 내 산책로(830m) 외에도 조명과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핫 플레이스다.

전남에서는 총 8개 관광자원이 선정됐는데 야간경관 부문에 ‘구봉산 전망대와 광양만 야경’, ‘함평엑스포공원’, ‘우수영관광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가운데 ‘우수영관광지’는 충무공의 명랑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1991년 명랑대첩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축제·이벤트 부문에는 ‘여수 빅옥쇼(Big-O Show)’,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영암달빛

축제’가 선정됐다.

야시장 부문은 ‘종포해양공원 낭만포차거리’, 투어프로그램은 ‘여수야간시티투어-시간을 달리는버스킹’이 선정됐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尹, 이규용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만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울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른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책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2020년 퇴임했다. 현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0 **금호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 일 시: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 소: 광주 금호고등학교 축조관

광주 금호고등학교 총동문회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농지법」제31조제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곡성군수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 위 치: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901번지 외 9필지
 - 목 적: 남해(CC로오네트CC) 조성사업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근 거: 농지법 제31조, 31조제2, 동법령 제28조, 28조제2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 해제: 5,341㎡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
2.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곡성군 홈페이지, 곡성군 민원실
 - 열람서류: 관련 도면 및 토지조서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3. 11. 9. ~ 2023. 11. 23.)
3. 기타사항
 - 곡성군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공고하오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따른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곡성군 민원실 허가민원팀 (곡성군 곡성읍 군정로 50, 농지담당 061-360-2632)

* 위 변경·해제 대상 중 향후 금년 변경 및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분할합병공고

(주권재출 및 채권자의제출공고)

주식회사 신인이엔지(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성기술(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3년 11월 8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2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과 "을"의 해당 주주에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갑" 주식회사 신인이엔지
전라남도 무안군 해례면 현호로 1583
대표이사 이숙희

"을" 주식회사 한성기술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분공평길 214
대표이사 주용우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승달전력(이하 "갑"과) 주식회사유정전력(이하 "을")은 2023년 11월 8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2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과 "을"의 해당 주주에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갑" 주식회사승달전력
전라남도 무안군 해례면 현호로 1583
대표이사 김준신

"을" 주식회사유정전력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인동길 174, 1층 2호
대표이사 박덕희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 628㎡ 대형건물
의뢰기간 4개월주 매디칼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

정정공고

본지 2023년 10월 10일자 게재된 (주)순광전력과 (주)금강전기의 분할합병공고중, 공고인 "을(주)금강전기의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영천성도길 111, 1층"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32, 1층"으로 정정 공고함.

先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동 206-1920, 문 206-1900, 북광주 525-0761
신안 222-8711, 영 신 571-7668, 오 206-7601
홍 433-1503, 우 신 433-1503

동구: 남 673-9836, 동 222-9054, 동 부 225-6001
영 222-9054, 흥 222-8711

남구: 남 부 673-9836, 백 651-1833, 흥 673-6836
흥 675-6605, 진 671-7276

서구: 경 382-5788, 서 372-2352, 서광주 369-1625
신 376-7153, 서 376-6511, 흥 673-0311
화 369-1625

광산구: 온 952-1687, 화 950-1920, 청 973-2900
하 955-0451, 흥 신 944-0444